

“건강은 인권이다”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라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

“건강은 인권이다 :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

국제간호협회(ICN·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는 2018년 제47회 국제간호사의 날(5월 12일) 주제를 ‘건강은 인권이다 :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Nurses : A Voice To Lead, Health is a Human Right)’로 정해 발표했다.

국제간호사의 날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1972년 제정됐으며, ICN은 매년 세계 간호사들이 함께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건강을 인권으로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은 “건강은 인권이며, 모든 인간은 자신이 가장 꼭 필요할 때 적절한 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간호사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계획 수립, 의사결정, 수행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N은 왜 건강이 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간호사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건강해야 한다. 특히 건강을 인권으로 인식하고 보장을 했을 때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할 수 있다.

접근성(access)은 사람들이



국제간호사의 날 포스터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비용으로, 필요할 때 기다리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적절한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은 모든 국민이 그들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즉 재정적 위험 없이, 필수적인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7개 목표 중 ‘3. 건강과 웰빙’의 세부실천목표에 해당된다.

접근성 보장을 위해선 교육을 받고 올바른 기술을 가진 보건의료인이 적정인력 배치되어야 한다. 특히 간호사가 적정인력 배치될 때 환자안전과 서비스의 질이 보장된다. 연구결과 간호사 당 환자가 1명 더 늘어날 때 수술환자의 사망위험이 7% 증가했다. 간호사가 적정인력 배치될 때 환자의 사망위험, 재입원률, 병원감염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최우선하는 가치는 건강이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

은 생명을 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길이다. 건강상태가 나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직업을 구할 가능성이 낮아지며, 자기 개발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건강은 생물학적, 병리학적 관점을 넘어 정치, 사회, 경제, 과학, 문화적 모든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깨끗한 물, 위생, 충분한 음식, 주거환경, 좋은 근무환경, 교육 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 건강 수준을 좌우한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국가 자원과 비용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건강에 대한 투자의 경제적 이익은 비용 대비 10배 이상 크다고 말한다.

간호사는 보건의료 시스템과 서비스를 변혁시켜야 할 핵심인력이다. 건강을 인권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책임감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행동해야 한다. 정책제정에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며, 간호사를 제외한 테이블에서 건강정책이 결정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간호사는 사람 중심의 돌봄을 주도해야 한다. 간호의 철학적 토대는 건강에 대해 사람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다. 사람 중심이란 사람(환자)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돌봄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사람들과 함께한다(with)는 의미이다.

ICN은 “2018년을 ‘건강은 인권’이라는 이슈를 주도하고 목소리를 내는 해로 만들자”면서 “간호사들은 한목소리로 함께해야 하며, 크게 외치고,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된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 지정된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명시한 개정 아동복지법이 4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앞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지역 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지정 기준을 갖춰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의료업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이 취소된다.

한편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약사회·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정실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는 인권교육 실시 대상을 노인복지시설 중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로 정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할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의 범위를 안 질환, 무릎관절염, 전립선 질환으로 정했다.

주혜진 기자 hjoo@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결핵 신환자 감소에 기여

전국 125개 민간의료기관에서 205명 활약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해 결핵환자를 철저히 관리한 결과 결핵 신환자 발생이 감소하고, 결핵환자 치료성공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2018년 민간·공공협력(PPM) 국가결핵관리사업 워크숍’을 4월 20일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권역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 17개 시·도 결핵관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은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철저한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의료기관과 정부가 협력해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민간·공공협력 결핵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1년에는 연간 결핵 신환자 발생 수가 3만9557명이었다.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에는 2만8161명으로 2만명대에 첫 진입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의 결핵환자 관리 분담률은 2011년 58.0%에서 2017년 68.7%로 확대됐다.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도 2015년 80.1%에서 2016년 84.3%로 향상됐다.

이 같은 결핵발생률의 감소와 치료성공률의 향상은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복약상담 및 관리 등을 통해 결핵환자를 철저히 관리한 결과이다.

현재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의료기관은 2018년 창원경상대병원 1개소 추가됨에 따라 총 128곳이다. 이중 민간의료기관은 125곳이며, 205명의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활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의료인 면허신고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2018년 면허신고 대상

- 2014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2년~2014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5년 면허 취득자
- 2015년에 면허신고 완료한 자

◆신고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면허신고 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 면제·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유예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또는 면제·유예 미확인 시 신고불가)

※ 2018년 신규 면허자의 경우 2021년이 면허 최초신고 해가 됩니다. 따라서 면허를 취득한 해인 2018년에는 면허신고할 수가 없으며, 면허신고 확인증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면허를 신규 취득한 해에는 보수교육 이수 대신 보수교육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KNA 면허신고센터

- 직접 찾아가기 (lic.koreanurse.or.kr)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koreanurse.or.kr)에서 클릭
- 콜센터 ☎ 1644-1755

등하고 있다.

결핵관리전담간호사는 결핵환자 복약상담 및 관리, 부작용 관리,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비순응 환자 파악, 보건소와 협조해 치료 유도, 입원명령 환자 관리, 결핵환자 사례조사 등을 담당한다.

사재석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 사업단장은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 참여 의료기관이 결핵환자 관리를 시작하면서 결핵 신환자 발생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결핵환자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환자관리 지표 분석 및 개선활동을 통해 치료성공률을 더욱 높여 우리나라 결핵발생률을 줄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 인구를 10만명당 40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

다”면서 “결핵퇴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결핵환자의 발견과 치료에 중요하므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사례관리 및 전염성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가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 비전 아래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인 인구 10만명당 40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2기 계획에서는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의 내실화에 주력하고, PPM 의료기관 지정과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 및 관리를 강화하고, 결핵접촉자 조사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혜진 기자 hjoo@

신발도 과학이다. 이제 건강을 신자!

발 피로를 풀어주는 세계적인 특허제품인 NABE 간호사 건강신발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NAVER 검색창에 나베간호화 를 쳐보세요

5컬레이상 주문시 : 10%DC
10컬레이상 주문시 : 15%DC
20컬레이상 주문시 : 20%DC

2011년 신제품
기능성 벨크로타입 출시

•NB-C05
- White
- 소재 : 합피, 소 가죽
- size : 225~250mm
- 가격 : White ₩34,000

2컬레이 이상 주문시 : 10% 할인



•NB-N02(샌들)
인조가죽 ₩30,000
Size : 225~250



•NB-N01(샌들)
인조가죽 ₩30,000
Size : 225~250



•NB-C03(캐주얼)
White ₩40,000
천연 소가죽
Size : 225~250



•NB-C01(캐주얼)
White ₩34,000
고급 인조 가죽
Size : 225~250



•NB-C02(고급형 캐주얼)
Black ₩60,000
천연 소가죽, 돈피
Size : 225~250



•NB-SW01(여성용 샌들)
Black / Beige 내피 : 소가죽 외피 : 고급인조가죽
Size : 225~250 ₩40,000



•NB-C07(캐주얼)
진밤색 ₩60,000
천연 소가죽
Size : 225~250



런닝화 HSO11
네이버 소재 : 소가죽, 에어메쉬
Size : 225~280mm
150,000 → 95,000



런닝화 HSO10
흰색/분홍색 소재 : 소가죽, 에어메쉬
Size : 225~255mm
150,000 → 95,000



남성용 구두 NB-MD02
Brown 소재 : 소가죽
Size : 245~280mm
140,000 → 60,000



스니커즈
Black/White 소재 : 최고급 소가죽
Size : 225~280mm 180,000 원